

5월 3단체 개별 공법단체 설립 합의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국가유공자법 개정 요청키로... 성사 여부 관심

사단법인 형태의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가 내년 상반기 안에 공법단체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월 단체들은 지난 10년여간 국가보훈처의 요구대로 3개의 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 4·13총선에서 정립된 여소야대 지형을 최대한 활용, 관련법을 개정하고 단체별로 공법단체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3월 5·18 유족회 등 3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별로 공법단체를 만드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단체별 회원의 성격과 기념사업 등 사업의 지향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체별로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단체법은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를 국가유공단체(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유공단체법에 따라 이들 단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도 지원받는다. 단체에 따라서는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물건 납품 등 수익사업시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반면 국가보훈처가 인정하는 사단법인인 5월 3단체는 기념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무실 임대료마저 밀린 상황이다. 5월 3단체는 4·19 관련 단체 3곳이 공법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5·18 관련 3개 단체도 별도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국회에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5월 3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법단체로 되면 단체의 법

적 지위 향상은 물론,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이 지급돼 안정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 곤궁하게 삶을 꾸려가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마무리되면 국회를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5·18단체가 개별적으로 공법단체로 인정받는다면, 보훈처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합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3단체는 지난 2008년 “5·18 정신 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단일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법인 정관, 대의원 수 등 내용 면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교대생 시국선언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예비교사들이 3일 대학내 학생회관 앞에서 “최순실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 발족

광주·전남지역 정당과 시민, 종교, 사회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한다. 이들 단체는 의견을 한데 모아 박 대통령 퇴진 투쟁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5개 정당과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준)’는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중 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해 정권 퇴진 운동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헌정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을 사라지게 한 국가비상사태”라며 “비상한 시국에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박근혜 퇴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향후 각계의 운동을 모아 비상시국대책기구를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광주운동본부는 5일 오후 6시 동구 금남로에서 ‘모이자 금남로로!’라는 주제로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시국 촛불대회’를 연다. 촛불대회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며, 앞서 같은 날 정오에는 1분간 경적을 울리는 경적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6일 낮 12시께 같은 장소에서는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 주관으로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 광주 노제’가 열린다. 백남기 농민은 같은 날 오후 5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장된다. 광주운동본부는 또 12일 오후 4시께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열리는 ‘11·12 민중총궐기’에도 참가한다. 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 여성 등 사전 대회에 참가하고,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 대행진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5개 정당·70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금남로서 백남기 추모·박근혜 퇴진 촛불대회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7
해질녘 17:35

달돋이 10:30
달질 20:59

겨울서 다시 가을로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조금	5/18	보성	구름조금	0/16
목포	구름조금	8/17	순천	구름조금	5/18
여수	구름조금	9/17	영광	구름조금	4/17
나주	구름조금	2/18	진도	구름조금	4/17
완도	구름조금	8/17	전주	구름조금	5/17
구례	구름조금	0/17	군산	구름조금	5/17
강진	구름조금	3/18	남원	구름조금	2/17
해남	구름조금	2/17	축산도	구름조금	10/16
장성	구름조금	3/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0.5~1.5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1.5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서)	서~북서 0.5~1.0	남서~서 0.5~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2	04:20
	22:08	16:58
여수	간조	만조
	04:49	11:26
	17:34	23:28

◇주간 날씨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8/20	8/20	9/19	11/13	4/14	3/15	5/16

◇생활지수

	관심
	보통
	보통

광주 올 김장 적기 11월말~12월초

올해 김장은 광주, 나주, 화순 등 내륙 지방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이 가장 적기로 전망된다. 여수, 순천, 목포 등 남해안지방은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김장하기 알맞은 시기로 예상된다. 민간기상예보업체 케이웨더는 3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김장 적정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의 적

정 김장 시기를 안내했다. 케이웨더는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가 김장을 하기 적절한 때라고 밝혔다. 이보다 기온이 높을 경우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을 경우 배추나 무가 얼게 돼 제 맛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엉뚱한 곳에 쓴 교육력 제고사업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65%가 교사수당 집행

학습 부진아들의 기초학력 향상 및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할 교육력 제고사업비가 학교 심화반 교사들의 수당으로 쓰이는가 하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준비물’ 구입비가 교사들의 교재 구입에 사용되는 등 교육 현장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3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2013~2015년)간 51개 교교의 교육력 제고사업 지출액 64억 5000여만원 중 64.6%가 교사 수당으로 집행됐다”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등에 쓰도록 일반교에 지급된 교육력 제고 사업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력 제고사업은 교육 현장에서는 사업비의 상당수가 심화반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수당이나 눈술 지도, 자습 감독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비판이다. 당장, 최근 시교육청은 A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교육력 제고사업비가 상위권 학생을 위한 눈술지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데 등 사업 목적외로 쓴 돈이 6430만원(47%)에 이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정각 써야 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같은 기간 고작 7.2%인 4억7000만원만 사용됐고 진로진학교육 등에는 1억7000만원(2.6%)만 쓰였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